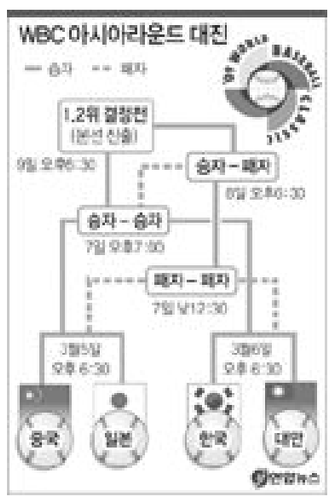
추신수·이대호·이종욱 지켜보라!

WBC 조직위, 한국대표팀 핵심선수로' 삼총사' 평가

日 대표팀, 마쓰자카·이치로 등 3명 키플레이어 꼽아



추신수(27·클리블랜드), 이대호(27·롯데) 그리고 이종욱(29·두산).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조직위원회가 삼총사를 한국 야구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평가했다.

WBC 조직위원회는 홈페이지에 25일 각국 최종 엔트리를 발표하고 조별 예선 전망을 실었다. 팀별로 2006년 초대 대회 결과와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선수 숫자를 밝히고 핵심 선수와 간단한 평가를 곁들였다.

WBC 조직위원회는 대표팀에 대해 '2006년 6승1패로 참가국 중 가장 좋은 성적을 남겼으나(희한한 규정 탓에) 준결승에서 일본에 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1회 WBC에서 홈런(5개), 타점(10개) 1위였던 주포 이승엽(33·요미우리 자이언츠)이 빠졌지만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저력이 있고 막강 화력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좌투수 공략에 눈을 뜬 한국대표팀의 유일한 빅리거 추신수가 큰 힘을 보탤 것이고 올림픽 스타인 이대호(지명타자)와 톱타자 이종욱이 일을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WBC 조직위원회는 이진영(LG)을 중견수 겸 3번 타자로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초대 챔피언 일본에 대해서는 '국제 경기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 많다'면서 에이스 마쓰자카 다이스케(보스턴), '천재타자' 스즈키 이치로(시애틀), 탬파베이 2루수 이와무라 아키노리 등 세 명을 키 플레이어로 꼽았다.

특히 3승무패 평균자책점 1.38로 초대 대회 최우수선수를 차지한 마쓰자카가 건재하다면서 빅리거 5명의 관록을 높게 평가했다.

9명의 마이너리거를 앞세운 대만에 관해 WBC 조직위원회는 2루수 장즈시앤과 외야수 린저시앤(이상 보스턴 마이너리거), '대만의 오카지마 히데키'(보스턴)로 불리는 좌투수 니푸더(디트로이트) 등을 중심 선수로 지목했다. /연합뉴스

"이번엔 반드시 명예회복" 혼다LPGA타일랜드에 출전하는 신지애가 25일 태국 파타야 샴골프장 플랜테이션코스(파72·6천477야드)에서 연습 라운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맨유, 7월 방한 가능성 높아

'산소 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오는 7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맨유의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맨유가 오는 7월 16일부터 26일까지 중국과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국을 도는 아시아 투어에 나서기로 하면서 FC 서울과 2년 만의 친선경기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FC서울 프로축구단과 GS칼텍스배구단을 운영하는 ㈜GS스포츠의 정종수 사장은 지난 21일 맨유 홈구장인 올드 트래퍼드에서 데이비드 길 맨유 사장을 만나 방한 경기가 성사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맨유와 FC 서울의 친선경기 가능성이 되살아날 조짐이다. /연합뉴스

U-20 홍명보號, 1기 명단 28명 확정

사령탑으로 축구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홍명보 20세 이하(U-20) 대표팀 감독이 첫 소집 훈련에 참가할 선수 28명을 추렸다.

대한축구협회는 홍 감독이 제출한 1차 훈련 소집명단 28명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미드필더 서정진(전북)과 문기한(서울), 골키퍼 이범영(부산), 공격수 김다빈(대전) 등 프로축구 K-리그 소속 선수 네 명이 포함됐고, 나머지는 대부분 대학 재학생이다.

17세 이하 대표 출신 공격수 배천석(숭실대)과 미드필더 한국영(숭실대)을 비롯해 수비수 임하람, 김민우(이상 연세대), 이윤호(고려대), 구본상(명지대), 미드필더 고무열(숭실대), 김영욱(광양제철고), 공격수 김다빈 등은 20세 이하 대표팀에 처음으로 뽑혔다.

홍 감독은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파주 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로 선수들을 소집해 같은 달 14일까지 1차 훈련을 지휘한다. /연합뉴스

북한전 앞둔 허정무號 내달 26일 소집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목표를 향해 순항하는 축구대표팀이 다음 달 26일 소집해 북한과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4월1일 오후 8시·서울월드컵경기장) 홈 경기에 대비한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1일 이란과 4차전 원정경기(1-1 무승부)를 치르고 나서 해산해 휴식기를 맞고 있다.

월드컵 최종예선 일정의 반환점을 찍은 한국은 B조 1위(2승2무·승점 8)로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북한(2승1무1패·승점 7)과 이란(1승3무·승점 6)이 뒤를 쫓고 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살얼음판 정국인 만큼 대표팀은 북한과 5차전에서 반드시 승점 3점을 챙겨 놔야 후반기 일정 준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연합뉴스

테니스 스웨덴-이스라엘戰 '무관중 경기로'

남자테니스 국가대항전인 데이비스컵 대회 월드그룹 1회전 스웨덴과 이스라엘전이 무관중 경기로 열리게 됐다고 AP통신이 25일(이하 한국시간) 보도했다.

3월7일부터 9일까지 스웨덴 말뫼에서 4단식-1복식으로 열리는 이 경기는 반 이스라엘 시위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중 없이 경기가 치러진다.

스웨덴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말뫼는 이슬람 단체가 일정 세력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스라엘과 데이비스컵 경기를 포기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 사태에 대한 여파에다 지난주 두바이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 투어대회에 출전하려던 샤하르 피어(이스라엘)에 대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등 스웨덴-이스라엘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경기 장소를 스톡홀름으로 바꾸는 방안도 나왔지만 결국 예정대로 말뫼에서 무관중 경기로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시복싱연맹 회장 김인학씨

광주시복싱연맹 회장에 김인학((주)이건 종합건축사 대표)씨가 추대됐다.

최근 열린 복싱연맹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추대된 김 회장은 26일 취임식을 갖고 2012년까지 4년간 연맹을 이끌게 된다.

道생체협 '광장지도자' 추가 배치

전남도생활체육협의회(회장 이탁우·이하 도생체협)가 도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124명을 22개 시·군에 배치해 전문지도를 하고 있는 도생체협은 오는 4월부터는 광장지도자 39명을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도생체협은 그동안 시·군에 집중됐던 지도자들을 면과 동지역으로 확대 배치해 생활체육 인구 증가에 노력하고 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박지성 공수 맹활약 평점 7

챔스리그 인테르 밀란전

선발 출장…팀 0-0 비겨

'산소탱크'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꿈의 무대'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 선발 출전해 83분을 뛰었고 맨유는 득점 없이 비겼다.

맨유는 25일 새벽(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주세페메아차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8-2009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인테르 밀란(이탈리아)과 원정 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조별리그에서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던 맨유는 이번 무승부로 내달 12일 인테르 밀란과 홈 2차전을 치러 8강 진출을 가린다.

박지성은 지난해 12월 올보르BK(덴마크)와 조별리그 E조 최종전에서 교체 출전하고 나서 두 달여 만에 다시 챔피언스리그 무대를 밟았다. 선발 출격은 지난해 9월 비야 레알(스페인)과 조별리그 홈 1차전 이후 5개월여 만이다.

박지성은 선발 출격해 후반 38분 웨인 루니와 교체될 때까지 그라운드를 부지런히 누볐고 공격은 물론 수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맨체스터 지역지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는 25일(한국시간) 새벽 치러진 인테르 밀란전에 출전한 맨유 선수들의 평점을 매기면서 박지성에 대해 "이런 상황에서 왜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좋아하는지 쉽게 보여줬다. 훈련 상태와 운동 능력은 흠잡을 게 없었다"라고 칭찬했다. 평점은 7점.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26일(목)

▲08/09 NBA〈디트로이트 : 뉴올리언스〉(10 : 00·SBS스포츠)

▲08/09 여자프로농구〈삼성생명 : 신한은행〉(16 : 50·SBS스포츠)

▲NH농협 08/09 V리그〈GS칼텍스 : 도로공사〉(16 : 40·KBS N스포츠) 〈대한항공 : LIG손보〉(18 : 40·KBS N스포츠)

▲08/09 프로농구〈모비스 : 동부〉(18 : 45·Xports) 〈오리온스 : KTF〉(18 : 50·SBS스포츠·MBC ESPN)